

<환 영> 샬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장점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서로 나누어봅시다.

<찬 양> ㄱ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 ㄱ 예수 이름 높이세 (수많은 무리를 줄지어)

<말 씀> 롬6:1~5

1.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가르침이 혹시 나에게 신앙의 나태함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까? 각자가 어떤 나타함이 있었는지 고백해보고, 그 결과 어떤 신앙의 퇴보가 있었는지 반성해봅시다.
2.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죽어 장사지낸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당신에게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신앙생활에서 어떤 큰 차이가 있게 될지 상상해봅시다.
3.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내 안에 계속 죄가 일어나는 이유를 세례로서 설명해봅시다.(롬6:3~4) 바울은 구약의 어떤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고전10:1~2) 가상의 애굽, 홍해, 광야, 가나안을 그림으로 설명해봅시다.
4.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에서 나아갈 때 첫 번째 싸운 전쟁 대상은 어디이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출17:8~16) 회개하며 은혜 받은 후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적은 없습니까? 나의 아말렉을 서로 나누어봅시다.
5. 새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은 진리의 삶과 연결됩니다. 진리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고전2:12) 또한 알았던 진리를 어떻게 누리는 것입니까?(롬6:11) 개인적으로 진리를 알고 누리는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로 나누어봅시다.
6. 진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진리대로 인생을 드리는 삶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진리의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롬6:13)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진리의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결단하며 발표해봅시다.

<기 도>

1. 개인/가정: 일상의 예배자로서 진리대로 온 인생이 드러지는 은혜가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만남의 축복과 결혼의 은혜가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태의 문이 열리고 다산의 은혜가 임하도록
관계가 깨어진 가정마다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도록
2. 교회: 담임목사님과 중직자, 교역자들이 진리를 잘 선포하고 말씀을 실천하는데에 더욱 본이 되도록
제자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온전해지며 불씨가 되어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되도록
교사훈련원(10/23~11/20), 중보기도 1일세미나(10/24), 힐링캠프(의료선교의날,10/25) 등의 사역을 위해
세계관아카데미(9/16~11/25), 삼일결혼예비학교(10/11~25)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도록
선교 주중 기도회를 통해 기도로 먼저 사역을 감당하고, 언어강습회를 통해 영혼들을 더욱 사랑하도록
3. 나라: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악한 곳으로 사랑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설교요약>

1.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옛 삶에 거할 수 없다

본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6:1)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골자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오해하였습니다. 오해의 배후에는 당시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과 육을 분리하여 이분법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 결과 육이 요구하는 죄에 내버려두고 영혼만 귀하게 여기고 구원 받으면 된다는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편으로는 육의 불결함 때문에 육을 고단하게 만들어 영혼을 보전하려고 했던 금욕주의가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답변을 주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6:2)

2.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성도에게 새로운 전쟁이 기다린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죄에 걸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고 새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 확실한데, 내 안에 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것을 세례로 설명합니다.(6:3,4) 바울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라고 말합니다.(고전10:1,2) 히브리 노예들은 갈라진 바다 속으로 들어가 광야에 첫 발을 딛고 가나안을 향해 가고자 했습니다. 이 그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애굽쪽에서의 시각에서 볼 때, 히브리 노예들은 바다 속으로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옛 삶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나안 방향에서 볼 때에는 한 민족이 바다 속에서 살아 올라오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은 죽음과 새로운 삶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신약은 이것을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옛 삶에 죽는다는 의미를 담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새로운 삶을 위하여 첫 발을 내딛는 시작입니다. 그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로 막아 제일 먼저 싸움을 걸어 왔습니다.(출17:8~16) 이 전쟁은 애굽에 남아 있었다면 할 필요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진정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고자 하는 순간 싸움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홍해를 건넌 직후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아말렉이라는 존재로 설명합니다. 모든 성도는 이 전쟁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유월절 어린양의 죽음으로 이미 승리가 약속된 싸움입니다. 성도는 이겨 놓은 싸움을 시간 속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매일의 전쟁을 통해서 죄의 옛 그림자를 잘라내고, 진멸시키고, 새롭게 하는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3. 새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진리를 알고, 진리를 누리며, 진리대로 온 인생을 드러야 한다

성도의 삶에 전쟁이 있는 것에는 좀 더 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이유입니다.(6:4)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죽은 땅에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감각이 열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고전2:12)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성품, 사역,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 진리를 알았으면 이제 진리를 누리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합니다.(6:11) “여긴다”는 내 것으로 누린다는 개념입니다. 어마어마한 보화를 누리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합니다.(6:13)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 나의 삶을 집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걸쳐 새 생명에 거하기 위하여 진리를 알고, 진리를 누리며, 그 진리대로 온 인생이 드러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E E sus4 EM7 D/E
 찬스한 성령 - 남 - 마음 - 로 보내 - 내 몸
 사랑과 진리 - 의 - 한 줄기 - 빛 보내 - 내 몸
 AM7 G#m7 C#m7 F#m7 A/B E E+
 올 감 차며 - 주여 지는행 - 안함 - 만 죽어 - 올느 휘 내 부르신곳에서
 올 감 차며 - 주여 지는행 - 안함 - 그 사랑 - 올느 휘 내 부르신곳에서
 AM7 G#m7 C#m7 F#m7 A/B E D/E
 - 나는애 배 하네 - 어떤상 황 에 도 - 나는애 배 하네 - 부르신곳에서
 AM7 G#m7 C#m7 F#m7 A/B E
 - 나는애 배 하네 - 어떤상 황 에 도 - 나는애 배 하네 - Fine 내가
 AM7 B/A G#m7 C#m7 F#m7 A/B E E7
 걸 어갈 - 때갈 - 이되 - 고 살 아갈 - 때갈 - 이되 - 느그 곳에서 - 애배 - 하네 - 내가
 AM7 B/A G#m7 C#m7 D B sus4 B E/G#
 걸 어갈 - 때갈 - 이되 - 고 살 아갈 - 때갈 - 이되 - 느그 곳에서 - 애배 - 하네 - 부르신곳에서

G2 C3G G2 C3G G2 C3G G2 C3G
 1. 수 많은무리들 - 죽자어 - 그 몸들보가위 - 해따르네 -
 2. 나 외 - 게활이 - 생과하되 - 나 외 - 소망이 - 끊어질때 -
 G2 D#m7 B-D#m7 A#m7 G2 C3G
 평 범한모수이신그 분앞에 - 모든몸들이 - 끌어경배 - 하 - 네
 삶 외주관자되신그 분앞에 - 나의몸을 - 끌어경배 - 하 - 네
 G2 C3G G2 C3G G2 C3G G2 C3G
 모 도 - 문제들 - 하나하나 - 죽 음 - 가져도 - 힘 올알고 -
 나 외삶을그들 - 깨알집다 - 네 온소나와 - 음 평안해 -
 G2 D#m7 B-D#m7 A#m7 G2 C3G
 새 명외근원되신에 수이름알 - 에모도 권배 - 공보 - 하 - 네 -
 구 원외반사되신에 수의이름 - 을소리 높여 - 찬송 - 하 - 네 -
 D G Bm C G#m A2 G#m C2 D
 예수 이름높 - 이세 능 령외그 이름예수 이름높 - 이세 구 원외그 이름
 Bm Em4 E Am Dsus4 D
 예수 이름높부 - 르 는 자 예수 이름올만 - 는 자 -
 G G#m7 A#m7 G2 C3G
 예수 이름알에 - 나모는 - 자 복이있 - 도 다 - -